

디지털영상 모나와 모꼬, 이중 성격의 캐릭터



아이멀티프로 윤상철 대표는 기획력과 빠른 피드백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imultipro

어느 날 지구로 떨어진 모나, 모나의 꼬리인 똑똑한 모꼬. 이중 성격의 독특한 캐릭터인 모나와 모꼬는 플래시 작품으로는 처음으로 한국 소프트웨어진흥원의 디지털콘텐츠대상을 받았으며, 해외로 약 12만 달러치를 수출하기도 했다. 아이멀티프로사의 홈페이지(www.imultipro.com)에서 플래시로 이들을 만날 수 있다.

윤상철 대표가 이끄는 기획력이 우수한 아이멀티프로는 플래시 전문기업이다. 평상시에는 매우 소규모 인원으로 운영하다가 프로젝트 따라 대규모팀이 구성되기도 하는 등 신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아이멀티프로는 프랑스·일본 TV 방송사 등에 스팟 애니메이션 장르로 접근하고 있으며, 북경 '한중디지털네트워크' 등에 참여하기로 하는 등 대외 활동에 적극적이다. TV용으로 제작해 해외 반응을 보고 제의가 오면 공동제작하는 방식으로 프로젝트가 진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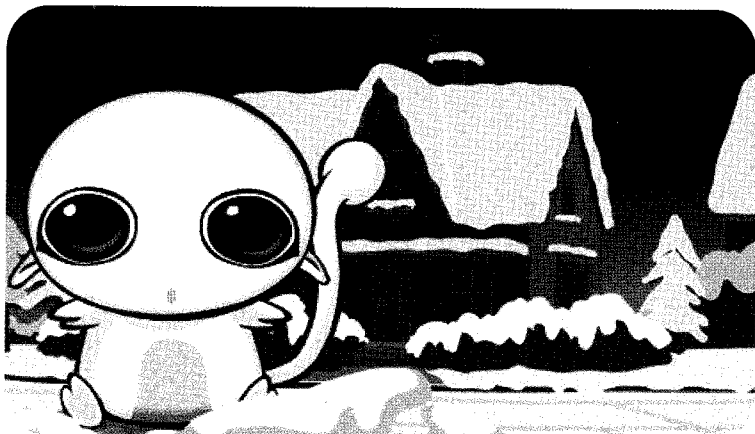
플래시란 뉴미디어는 상업용으로 아직 많이 쓰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일단 제작하면 출판, 인터넷, CD 타이틀, PDA용 애니메이션, TV 방송 등 여러 분야에 쓰여진다.

특히 아이멀티프로는 해외를 겨냥해 작품을 만들기 때문에 시작부터 사운드 제작을 전문 스튜디오에서 제작하고 저작권문제를 해결한 다음 작품 진행에 들어간다.

아이멀티프로의 경쟁력은 뛰어난 기획력과 빠른 피드백이라고 윤상철 대표는 말한다. 경험 많은 PD로 구성된 전문가들이 제작하므로 작품의 완성도가 높다. 이렇게 만들어진 작품이 해외에서 알려질 때는 거침없는 언어소통으로 빠른 피드

백을 주므로, 일의 진행이 빠르고 서로의 노하우를 주고 받으면서 최고의 작품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다.

플래시 애니메이션은 떠오르는 뉴미디어로 기대되고 있으며, 아이멀티프로는 이 뉴미디어를 이끌고 가는 선두 기업임에 틀림없다. 김범수/PC라인 기자 (kimbs@pcline.co.kr)



독특한 성격의 캐릭터인 모나